

치명적 매력, 가을 극장가 '조커' 돌풍

호아킨 피닉스 신들린 연기 호평
악당 탄생 서사 매혹적으로 묘사
오픈 엔딩...관객 해석 욕구 자극
조커 심리 반영 음악도 흥행 한몫

영화 '조커'가 제대로 터졌다. 블랙 코미디 같은 세상에 보내는 악당 조커의 냉소가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2일 개봉해 닷새 만에 200만 명을 동원한 영화는 한글날을 앞둔 8일과 9일에도 그 여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덕분에 한동안 침체됐던 극장가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할리우드 히어로 배트맨의 숙적이자, 희대의 악당으로 꼽히는 조커의 탄생 서사를 새롭게 구축한 '조커'는 7일 현재 40%대의 예매율로 굳건한 1위다. 첫 주말 220만 관객을 가뿐히 넘겼고 주중 300만 돌파 역시 확실시된다. 열풍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개봉 첫 주말 전 세계에서 2억3400만 달러(약 2800억 원)에 이르는 흥행 수익을 올렸다.



2일 개봉한 영화 '조커'가 닷새 만에 2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개봉 직전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과 기존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로 쌓은 브랜드네임을 기반으로 기대를 높인 '조커'는 작품 공개 이후 기대를 뛰어넘는 완성도로 관객을 빨아들고 있다. 주인공 조커를 연기한 호아킨 피닉스의 '신들린 연기'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코미디언을 꿈꾸는

소심한 남자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미쳐 가는지, 어떻게 악당 조커로 변모하는지를 소름 끼치도록 매혹적으로 표현해냈다.

15세 관람가인 '조커'는 당초 미국 코믹북 기반의 히어로 영화에 열광해온 2030세대의 선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마케팅을 담당

하는 영화사 로스크ROSC의 김태주 실장은 7일 "개봉 첫 주에 10대 학생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로 관객 분포가 나타났다"며 "일부에선 대중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작 개봉 이후엔 연령층의 선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NS와 유튜브에서는 제작진이 거미줄처럼 짜 놓은 조커 탄생의 '설계도'를 파헤치고 분석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오픈 엔딩'을 택한 결말이 관객의 해석욕구를 한껏 자극하면서 다양한 분석이 활발히 공유되고, 이는 곧 입소문 확산으로도 직결되고 있다.

'조커'는 탁월한 연기와 연출력은 물론 음악, 미술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이루는 주요 요소들로 관객을 자극하는 흔하지 않은 작품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메인 곡인 '스마일'은 극 중 여러 방식으로 오마주되는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 '모던 타임즈' 테마곡에 가사를 붙인 노래. 처연한 조커의 심리를 반영한 곡으로 관객의 귀까지 사로잡는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가수·기획사 대표·프로듀서... '1인 3역' 사이

12월 '올나잇 스탠드' 콘서트 기획
제시·현아·크러쉬 등 폭풍 영입도

가수 사이가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다. 본업인 가수는 물론 올해 초 설립한 연예기획사 피네이션의 대표, 그리고 프로듀서 역할까지 19년간 연예 생활로 쌓은 노하우를 다방면에 쏟아내고 있다.

싸이는 앞서 7월 2년 2개월 만에 정규 9집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서 발매 시기가 미뤄졌다. 오래 준비해 공을 들인 앨범이지만 한 차례 미뤄진 만큼 더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창 작업 중이다.

새 앨범 작업과 동시에 12월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7월부터 전국을 돌며 자신의 브랜드 콘서트인 '홀백쇼'를 끝낸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매년 12월 밤을 새워 공연하는 '싸이 올나잇 스탠드' 구상에 들어갔다. '올나잇 스탠드'는 2004년부터 연말이 되면 펼친 사이의 또 다른 브랜드



싸이

콘서트다. 그동안 공연마다 기상천외한 무대 콘셉트로 관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던 그가 이번엔 어떤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콘서트 개최 날짜와 횟수 등을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콘서트 역시 해마다 입장권 예매 시작(1만5000석)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와 프로듀서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 "꿈을 위해 땀을 흘리는 열정적인 선수들의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최종 목표에 따라 최근 다양한 매력을 지닌 가수들과 소통하고 있다. 첫걸음으로 래퍼 겸 여성 솔로가수 제시를 시작으로 현아와 이던 커플, 크러쉬 등을 잇달아 영입해 회사 몸집을 키우고 있다. 자기 생각과 잘 통하는 개성 강한 가수들과 접촉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신인 개발에도 한창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로맨스도 워맨스도 척척... '로코 여신' 공효진

로코 경험 적은 강하늘과 완벽 호흡
절친 손담비와 '걸크러시' 매력까지

연기자 공효진이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로맨스'와 '워맨스'를 동시에 소화하며 드라마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극중 상대역인 강하늘, 손담비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캐릭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강하늘과 호흡을 맞춘 '공불리' '로코여신'이라는 애칭의 소유자다운 진면목을 보여준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캐릭터 설정에도 20대 못지않은 풋풋함과 사랑스러움을 드러내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로맨틱 코미디 장르 경험이 많지 않은 강하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공효진의 감정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덕분에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시청자들의 평가가 이어진다.

여배우와의 호흡에서도 빈틈이 없다. 극중 공효진과 손담비는 든든한 동네 언니·



공효진(오른쪽)과 강하늘.

동생 사이. 의리에 죽고 사는 '걸크러시' 매력을 통해 '워맨스'의 힘을 극대화한다.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를 챙기고 속마음까지 꿰뚫고 있는 관계를 실감 나게 표현해 드라마의 또 다른 재미를 안긴다.

두 사람의 '워맨스'가 잘 드러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효진과 손담비는 실제로도 '절친'한 사이다.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각종 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모녀여행도 함께 즐길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한다. 격이 없이 지내는 절친함이 드라마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강남·이상화 '꿀 떨어지는 웨딩화보' 가수 강남(왼쪽)과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상화가 7일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강남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상화의 모습이 다소 어색해보일 정도지만 행복한 두 사람의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지어진다. 사진 속에서 강남은 예비신부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하며 달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은 1년의 연애 끝에 이달 12일 서울 광장동 비스타 워커히 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사진제공 | 본부이엔티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MSM 프리미엄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화주시면 30정 1통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계단만 보면 뛰어 올라 가고 싶다...

관절/연골

MSM이란?

MSM은 연골, 인대, 연결 조직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 받은 소재입니다.

이런분들이 신청해드세요

- 무릎, 관절이 불편하신분
-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분
- 계단을 오르내릴때 무릎이 불편하신분
- 노화로 관절건강에 이상이 있으신분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분
- 과체중으로 관절건강에 유의해야하는분

용량 : 500mg×30정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MSM 30정 1통을 무료로 드립니다.

☎ 1588-0947

(주) 현대생활건강